

문화방송 특보

발행일 : 2026. 03. 13

서울지부 임협특보

www.mbcunion.or.kr

발행인 전성관 편집인 조재영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전화번호 02-789-3884, 3886 FAX 02-782-0135

공정방송 깃발 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2025년 임금협상(서울지부 보충) 타결

150만 원 지급 & 4.5일제 5주차 실시 & 검진비 44만 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는 150만 원 일시금 지급과 4.5일제 5주차 확대 실시, 건강검진 단가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임금협약 보충협약'을 어제 사측과 체결했다. 지난 1월 29일 대의원회에서 임협(보충) 교섭안을 승인받은 직후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최종 협상,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임협을 마무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0만 원 일시금 지급

서울지부는 이번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임협 타결 일시금'을 지급받는다.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에 기여한 구성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조합원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해당 일시금은 오늘 시간외실비 계좌를 통해 입금될 예정이다. 3월 12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이 지급 대상이며, 2025년 실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휴직 기간 제외).

당초 조합은 현재 상여 기준 70%에 해당하는 5월 특별상여를 100%로 인상할 것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해 273억 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이유로 '정기성 급여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올해 1월과 2월 광고 매출이 각각 1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영업적자를 기록한 2014년과 2017~2019년 당시, 회사는 임금협상(공통·보충)에서 기본급 인상은 고사하고 일시금조차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조합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구성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끈질기게 이번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기존 관행을 깨고 '적자 국면에서의 일시금 지급'이라는 돌파구를 새로 열었다.

특히 5월 특별상여 30% 인상 시 대략적인 예상 금액이 평균 약 100~11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50만 원을 일시금 지급액으로 최종 관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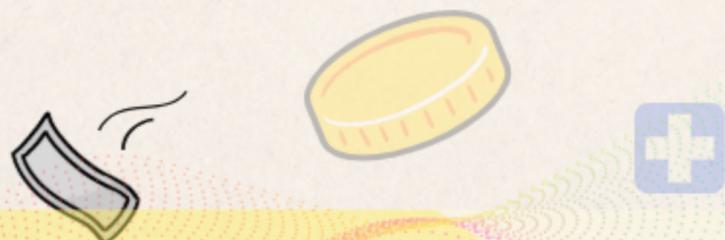
4.5일제 5주차 확대 실시

지난 2023년 8월 도입된 '격주 4.5일제'(매월 둘째·넷째 주 금요일)의 전면 시행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매월 다섯째 주 금요일까지 4.5일제가 확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5주 차 금요일에 4.5일제 근무가 시행된다. 7월과 10월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4.5일제 전면 시행 시점을 못 박아야 한다고 강력히 압박했으나, 사측은 "경영진 교체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조합은 이번 5주 차 확대 실시 조치를 비롯해, 노사간 '4.5일제 유연화 협의회'를 2월부터 가동, 빠른 전면 시행을 위해 부문별 실행률을 높이는 등 모든 조합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건강검진비 44만 원 보장

-20여 년 만에 첫 인상- (남·녀 동일)

2005년 이전부터 남성 35만 원, 여성 44만 원으로 묶여 있던 건강검진 비용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그동안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검진 수요는 급증했지만, 회사는 20년 넘게 검진 비용을 동결해 왔다. 이로 인해 조합원은 물론 조합원의 배우자, 가족까지도 수면 검사 같은 기본 항목조차 개인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조합원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44만 원으로 보장하면서 여성은 기존 수준의 검진을 지속할 수 있고, 남성은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지부 대의원회



앞서 지난 11일 <2025 임금협약(보충) 가합의안> 심의·의결을 위한 서울지부 제4차 임시대의원회가 열렸다. 전성관 서울지부장은 “1,136명 조합원의 삶을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키기 위해 조합은 최일선에서 싸워야 하는 조직이라 믿는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아쉬운 결과다”,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기본급 인상이 필요하다”, “4.5일제 전면 실시를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조합 집행부는 “과거 적자 상황에서 회사가 기본급을 인상한 선례가 없었고, 타 방송사 역시 적자인 경우 올해 기본급을 올린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MBC는 호봉제의 특성상 매년 평균 약 2.2%의 연소득이 자연 상승해 실질 임금이 어느 정도 보전되는 측면이 있으며, 4.5일제 전면 실시를 위한 중간 단계로 5주 차를 추가하는 한편, 향후 요일별·개인별 유연화를 통해 시행률을 조속히 끌어올려 전면 시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60명 중 32명이 출석했고,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가') 19표·반대('부') 11표·무효('찬성','가결' 한글 표시) 2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 가합의안이 승인됐다. 전성관 지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 표 한 표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회사와의 협상에서 좀 더 흡족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위원장의 편지

냉철한 반성으로 1년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 다잡고 전진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서울 지부장 전성관입니다.
저희 16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출범하면서 조합원들께 드렸던 첫 다짐, “조합원분들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제고” 하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실천했는가를 돌아봅니다. 말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 드려야 했기에 임단협에 총력을 다해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노보에서도 보셨듯이 저희가 제출한 1년 노력의 결과에 대해 조합원을 대표한 대의원분들의 우려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협상을 책임지는 지부장으로서는 1,136명의 조합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조합은 지난 1년을 복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성찰하겠습니다.

날카롭게 비판해 주신 조합원분께 감사드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조합을 향한 애정 받아 안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1년을 달려가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묶습니다.

외람되지만 조합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조합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합의 뒷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가 달려 나갈 때 우리의 전진을 막으려는 온갖 맞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 맞바람을 힘차게 뚫어낼 수 있는 등 뒤의 뒷바람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조합원분들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비판과 더불어 따스한 격려와 응원이 저희가 쓰러지지 않고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든든한 뒷바람이라고 믿습니다.

‘조합원 속으로 성큼성큼, 조합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첫 다짐, 다시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부

노사협의회 지상중계



서울지부 노사협의회(2025년 4분기)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6년 만에 273억 원의 대규모 영업적자가 난 사실을 지적하고, 적자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조합은 "경영진이 줄곧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하니 직원들은 회사의 위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구성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전달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합은 "창사기념사와 신년사 등 회사의 최근 메시지는 '2026년은 혁신과 도전의 열매가 돌아오는 성과의 원년'이라는 식의 낙관적이고 화려한 얘기 뿐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와 '대규모 적자 기본급 동결'이라는 소식에 직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사측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5년 영업적자 273억 원 "경영진은 결과로 책임져야"

이번 노사협의 최대 쟁점은 2025년 경영실적 평가였다. 조합은 273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의 원인과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조합은 "핵심 시간대 2049 시청률 10년 만에 1위, 라디오 청취율 3년 연속 1위, 네이버 뉴스 구독자 수 방송사 1위 등 2025년에 거둔 MBC의 성과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왜 2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대응 지연이나 전략적 판단의 잘못은 없었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영업손실의 총체적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면서 "구성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측은 광고 수익 급감을 적자의 첫째 원인으로 꼽았다. 지상파 3사 광고 매출이 지난 2023년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글로벌 OTT 판매 지연과 드라마 판매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은 "광고 수익 급감에 따른 매출 다각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MBC의 절실한 과제였는데, 임기 3년을 마친 경영진이 이제와 시장 상황을 탓하는 것은 스스로의 전략 부재와 실기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MBC의 본질이 콘텐츠 제작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 제작 역량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낸 구성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는 "올해 광고 매출 예산은 현실적으로 책정했으나 콘텐츠 수익은 전망이 좋아 목표치를 높였다"며 "<21세기 대군부인>, 프로젝트 K 등을 통해 높은 수익 실현을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IFWY 행사 전반 점검

"철저한 사전 검증, 스튜디오 K도 투명해야"

전 세계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공동 선언문을 결의하겠다는 MBC가 유엔사회개발연구소와 공동 주관했던 국제청년포럼 'IFWY' 행사(작년 7~11월)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조합은 "공익적 가치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획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약 4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행사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최종적으로 6억 원 이상의 적자를 안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며 "정부 예산의 일부 삭감과 항공료 급등, 기업 협찬 취소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겹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현재 추진 중인 '스튜디오 K' 사업 역시 IFWY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조합은 "IFWY 역시 '현금 투자 없는 수익 보장'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시작하지 않았냐"고 꼬집으며 "IFWY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스튜디오 K'에도 철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작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사측은 "레드팀(Red Team)을 가동해 리스크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208시간 근무 한계 상황

"장기간 과로에 대책 필요"

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구성원의 10%가 넘는 180여 명의 직원이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 이상 법정 노동 상한선인 월 208시간에 육박하는 심각한 수준의 고강도 노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사측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깊은 우려를 전했다. 이에 사측은 "과도한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실무적으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